

파리컬렉션에 나타난 반꾸밈적 뷰티디자인의 미적특성 연구

A Study on Aesthetic Characteristics of Anti-Decorative Beauty Design in Paris Collection

변영희* · 채금석
Byun, Young-Hee⁺ · Chae, Keum-Seok

숙명여자대학교 의류학전공 강사* · 숙명여자대학교 의류학전공 교수
Lecturer, Dept. of Clothing & Textile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Clothing & Textile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arch the tendency and to find the characteristics of anti-decoration of beauty design in Paris collection and to find the possibility to interpret the ones by the anti-aesthetics of Oriental with the characteristics of unbalance, irregularity, imperfection, asymmetry and so on. Anti-Decoration disregard the traditional composition and take some ugliness images and anti-aesthetics characteristics of in-harmony, asymmetry, imperfection, irregularity and so on. And ugliness is the most negative aesthetic value which is lack of beauty. For this study, about 1,000 works from 2001s/s to 2009f/w have been analyzed to figure out the anti-decoration and summarized as eclectic, natural, avant-garde, Poor tendency just like in fashion tendency. As well these tendencies are similar to the beauty of simplicity, poverty, incompleteness, vagueness and humor classified at 'anti-decoration culture in contemporary Japanese fashion'. Haute couture is composed of Eclecticism(46%), Naturalism(23%), Avant-Garde(23%), Poverty(8%) and prêt-à-porter is composed of Naturalism(37%), Eclecticism(32%), Avant-Garde(18%), Poverty(13%) in the characteristics of anti-decoration of beauty design in Paris collection. And Eclecticism accounted for the greatest portion of make-up design and naturalism accounted for the greatest portion of hair design. Ultimately, the characteristics of aesthetics sense of anti-decoration according to the tendency have been analyzed into transcendence, artlessness, abnormality, deviation.

Key Words : anti-decoration, transcendence, artlessness, abnormality, deviation

I. 서론

세계 4대 컬렉션 중 파리컬렉션은 다른 컬렉션들에 비해 예술성과 독창성 및 실험적 경향이 농후할 뿐 아니라 현재까지 파리를 중심으로 유지되고 있는 오프뚜띠르(haute couture)컬렉션은 프레타포르테(prêt-à-porter)를 비롯한 여타의 컬렉션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최근 파리컬렉션의 전반적인 경향은 무한한 디자인철학의 실현과 함께 각 장르의 구분을 초월해 무한한 실험적 시도를 추구하는 전위성(avant-garde), 시대적·민족적·계층적 측면에서의 크로스오버(cross-over)를 의미하는 질충성 및 미추(美醜)의 고정 관념을 탈피함으로써 기존의 정형화된 미적 표현이 아닌 반미(反美)적 추(醜) 이미지를 적극 수용한 빈곤성(poverty) 등을 특징으로 한 다원적·질충적·해체적 경향의 포스트모더니즘으로 설명되고 있다. 즉, 디자인 원리에 있어 균형, 대칭, 비례, 조화 등 정형화된 미적 준거의 틀에서 벗어나 불균형, 비대칭, 부조화, 비정형 등의 반미적 특성을 수용하면서 명료한 이미지 추구와 다른 모호(ambiguity)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패션을 완성시키는 토탈룩(total look)의 측면에서 접근되어 온 메이크업과 헤어디자인의 경향 또한 이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파리의 오프뚜띠르와 프레타포르테 컬렉션을 중심으로 한 뷰티디자인의 분석은 현재의 뷰티 트렌드(beauty trend)를 비롯해 미래의 뷰티디자인 경향을 분석·예측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최근 뷰티디자인에 대한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서양 중심적 예술 사조나 특정 디자이너와의 연관성 및 전반적인 경향 연구에 그치고 있어 새로운 관점에서의 접근이 요구되며, 최근 부각되고 있는 반미(反美)적 측면에서의 접근은 서양 중심의 이분법적 가치체계를 초월해 그 동안 비주류로 여겨지던 동양의 반꾸밈 미의식의 수용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의상을 비롯한 뷰티디자인에 있어 상식을 벗어난 이질적 요소를 통해 변화를 창출하고, 이로 인해 무한한 창조지를 실현하려는 패션의 속성을 반영한 것으로 토탈 코디네이션 연출에 있어서도 기존 이론에서 벗어나 반미(anti-aesthetics)적·실험적 경향을 적극 수용한 다양한 이미지 연출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파리컬렉션의 의의와 뷰티디자인 및 반꾸밈의 개념을 정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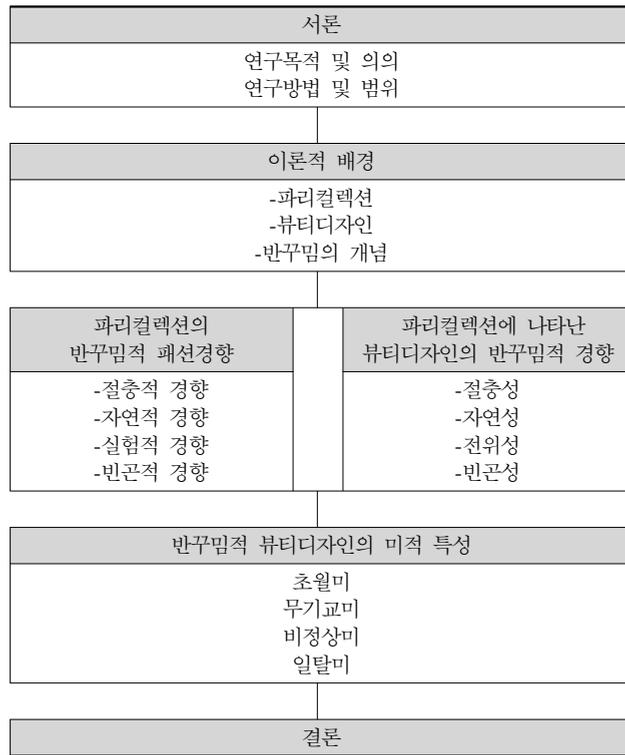
둘째, 21세기(2001년~2009년) 파리컬렉션의 반꾸밈적 패션 경향을 살펴본다.

셋째, 21세기(2001년~2009년) 파리컬렉션에 나타난 뷰티디자인의 반꾸밈적 경향을 오프뚜띠르와 프레타포르테 컬렉션 측면에서 메이크업과 헤어디자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넷째, 각 각의 컬렉션에 나타난 뷰티디자인의 미적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토탈 패션 연출에 있어 뷰티디자인의 역할을 재확인하고, 미래에 요구되는 뷰티디자인의 다양한 연출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 범위는 예술학, 향장학, 의류학 등의 서적 및 관련 발표논문을 통한 문헌연구와 뷰티디자인의 다양한 미적 특성 도출을 위해 2001년부터 2009년까지 파리를 무대로 지속적인 활동을 보이는 디자이너 35명의 작품 중심으로 1,000여점을 선별한 실증연구를 병행하였으며, www.style.com의 컬렉션 자료를 참고로 하였다. 단, 특정 디자이너의 성향에 치우치지 않도록 시즌별 패션 작품 1~2점만을 한정 추출하여 연구의 객관성을 두도록 한다.

<표 1> 연구의 구성도



II. 이론적 배경

1. 파리 컬렉션

1) 오프꾸뛰르(haute couture)

19세기 중엽 찰스 프레드릭 워스(C. F. Worth)에 의해 창시되어 현재 파리를 중심으로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오프꾸뛰르는 최고급 소재와 장인정신이 접목된 최고 품질의 사치스런 주문제작복으로서 시대적 변화와 더불어 창조적 조형미를 실현해왔다. 20세기 이전 곡선적 형태미에서 1920년대 이후 기하학적 단순미와 절제된 형태미로의 변화에 이어 20세기 중반은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으로 복합적·다면적 아방가르드(avant-garde)양식이 나타난다 <그림 1-3>. 특히 20세기 후반에는 불균형, 부조화, 비대칭적 특징이 반영된 반미학적 표현방식을 수용하게 되는데, 이는 오프꾸뛰르 산업의 침체와 시대적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과거의 미적 개념에서 수용되지 않았던 추(醜)개념과 동양의 반꾸밈 미의식을 수용한 열린 사고의 수용에 따른 것으로 현재 오프꾸뛰르는 프레타포르테에서 선보인 혁신적 스타일을 수용, 이를 신성화하는 작업을 통해 명예를 부여하는 제도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¹⁾

2) 프레타포르테(prêt-à-porter)

프레타포르테란 1960년대 오프꾸뛰르보다 값싼 2류 제품의 중요성을 깨달은 피에르 가르탱(Pierre Gardin)에 의해 생산되기 시작한 대량 생산체제의 기성복으로 오프꾸뛰르에 비해 가격이나 소재, 디자인 측면에서 실용성과 단순성이 엇보인다. 특히 파리의 프레타포르테 컬렉션은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까지 겐조(D.Kenzo), 레이 가와쿠보(R. Kawakubo), 이세이 미야케(Issey Miyake) 등 동양 디자이너들의 발판이 되었으며, 서양의 전통에서 벗어난 어둡고 음울한 룩(look)으로 신비하고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2) 단순하고 깔끔한 실루엣에 고급스러운 색감을 갖춘 밀라노 컬렉션이나 실용적이고 심플한 디자인을 지향하는 뉴욕 컬렉션, 과감한 실험정신이 돋보이는 런던 컬렉션3)과 달리 디자이너의 감성과 예술적인 실험이 자유분방하게 시도되는 파리의 프레타포르테 컬렉션은 새롭고 창의적인 미감을 추구하려는 디자이너들의 활동 무대가 되고 있다 <그림 4-6>.



<그림 1>
C. F. Worth 1887
(출처: Haute Couture, 1995, p.18)



<그림 2>
Chanel, 1926
(출처: Black in fashion, 1999, p.29)



<그림 3>
Christian Dior
2003fw
(출처: www.style.com)



<그림 4>
Yves Saint Laurent 1965
(출처: Modrian Collection)



<그림 5>
Pierre Gardin, 1960
(출처: 패션세계일문, 1999, p.173)



<그림 6>
Givenchy, 1979
(출처: 패션세계일문, 1999, p.190)

2. 뷰티디자인(beauty design)

1) 메이크업디자인(make-up design)

뷰티디자인에 있어 메이크업이란 신체 중 얼굴의 이목구비를 중심으로 색과 향을 더해 장점은 돋보이고, 단점은 보완함으로써 외형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을 말한다. 아름다움에 대한 기본적인 욕구에서 비롯된 메이크업

은 각 시대마다 요구되는 이상적인 미의 기준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변화해왔는데, 과거 흰 피부와 붉은 입술에 대한 선호 경향은 현대 다원주의의 영향으로 형태, 색상, 질감에 있어 점점 복잡한 양상을 보이며, 그 평가 기준 또한 모호해지고 있다. 즉, 디자인 원리의 무시 및 소재나 기법의 무제한적 사용을 통해 차별화된 이미지를 양산 하며, 의상 및 헤어스타일과의 균형, 조화, 통일을 무시한 극단적 표현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과거의 정형화된 미적 표현을 탈피해 빈곤·추 등의 반미적 개념을 수용함으로써 부조화의 조화 및 미완성의 미를 추구하려는 경향으로 토탈 패션에 있어 메이크업디자인의 역할 또한 중요시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2) 헤어디자인(hair design)

헤어(hair) 소재를 이용, 주제에 맞게 두발의 형태를 고안·계획하는 일련의 조형 활동으로 토탈 코디네이션에 있어 의상 및 메이크업과 함께 전체적인 이미지를 완성시키는 창조적 영역의 한 부분이다. 일상적 개념에서의 헤어디자인은 모델의 두상형태와 얼굴형을 고려해 이상적인 미의 기준에 접근, 전체적인 조화를 이끌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되지만, 패션쇼 무대의 헤어스타일은 개개인의 특성은 무시된 채 디자이너의 의도나 테마에 맞게 다양한 형태로 표현되고 있다. 즉, 의상 및 메이크업과의 조화나 이들을 빛나게 하는 보조적 역할에서 벗어나 보다 실험적이고 독창적인 이미지 창출을 위해 균형·비례·대칭 등의 조화원리를 파괴할 뿐 아니라 어울리지 않은 이질소재나 조형물을 도입함으로써 정제미의 표현에서 이탈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는 그동안 비주류로 인식 되어온 반미적 성향의 요소를 미적 영역으로 수용하려는 시도로써 미추의 이분법적 경계가 붕괴되는 시대적·문화적 배경을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반꾸밈(anti-decoration)의 개념

20세기 문화 전반에 산재해있던 이성적·논리적·기계론적·결정론적 세계관은 20세기 중반 패러다임의 변화를 맞으면서 감성적·심미적·유기론적·비예측적 세계관의 수용으로 이어져 불명료한 모호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과거의 이분법적 가치체계의 한계에서 벗어나 그동안 소외되어온 것들을 수용하려는 포스트모더니즘을 비롯해 전체성을 중시하는 동양의 상대주의적 가치관을 반영한 것으로 주류와 비주류의 명석한 구분이 아닌 모든 문화가 주류로 위치하는 다문화적 공존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⁴⁾

자연과 인간 및 정신과 육체 등 이분법적 사고체계를 갖는 서양미학의 기준에서 반꾸밈이란 꾸밈이나 아름다움과 반대되는 반미학(反美學) 또는 추(醜)의 개념과 연관 지어 볼 수 있는데, 먼저 할 포스터(Hal Poster)가 언급하는 반미학이란 미(美)나 이성에 대응하는 감성으로서의 반미학이 아닌 시공을 초월한 보편적 진리 체계의 추구⁵⁾라는 점에서 초(超)미학과 맥을 같이 하며, 코바타준코(木幡順三)는 조화·비례·질서 등의 이성에 대응하는 감성을 반미학이라 정의하였다.⁶⁾ 또한 아도르노(Theodor W.Adorno)는 예술과 밀접하게 관련된 미적 특질이 붕괴됨으로써 고전적 미-정확, 완벽, 통일, 명료-의 준거들이 의식적으로 파괴되는 결과를 탈심미화(de-aestheticization)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미의 결핍 상태를 의미하는 추(醜)의 개념 또한 반꾸밈과 유사함을 갖는데, 립스(Lipps)는 추가 미를 더욱 돋보이게 하는 적극적 의미를 인정하면서 추가 대상에 활기를 부여함으로써 특수한 쾌감을 불러들인다고 설명한다.⁷⁾ 이와 달리 동양에서는 모든 대상을 상대적 입장에서 바라봄으로써 불완전, 무형식, 무기교의 미를 추구하는데, 이러한 반꾸밈의 개념을 해롤드 코다(Harold Koda)는 불균형(unbalance), 불규칙(irregularity), 불완전(imperfection), 비대칭(asymmetry)의 일본 미학에서 찾고 있으며, 서양미학에서 추의 미학으로 인식되어온 로잔코

란츠(K. Rosenkrantz)의 불형식성, 부정확성, 변형의 미적 특성 또한 가즈히로 세이지마(涸廣正島)는 일본의 불균형적이고 불투명한 아름다움과 동일시하고 있다.⁸⁾ 이에 반꾸밈과 유사한 개념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반꾸밈(anti-decoration)의 유사 개념 정의

구분	학자	내용	특성
반미학 (anti-aesthetics)	할 포스터 (Hal Poster)	시공을 초월한 보편적 진리 체계의 추구	초월성, 해체성 탈경계성
	코바타준코 (木幡順三)	조화·비례·질서 등 이성에 대응하는 감성	부조화, 반비례 무질서
탈심미화 (de-aestheticization)	아도르노 (Theodor W. Adorno)	고전적 미의 준거 (정확성, 완벽성, 통일성, 명료성)의 파괴	부정확성, 불완전성 불명료성
추 (ugliness)	로잔크란츠 (K. Rosenkrantz)	불형식성, 부정확성, 변형(왜곡)	불형식성, 부정확성
반꾸밈 (anti-decoration)	해롤드 코다 (Harold Koda)	불균형, 불규칙, 불완전, 비대칭	비정형성, 불완전성
	가즈히로세이지마 (涸廣正島)	불균형, 불투명	불완전성, 모호성

이와 함께 도가·불교의 동양적 정신 사상이 보완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반꾸밈계 문화는 일본 특유의 주관적 변안과 해체를 통해 창출된 미의식이자 선(禪)철학에 의해 구체적으로 형상화되었다 할 수 있는데, 채금석(2004)은 현대 일본패션에 내재한 반꾸밈 미학에서 반꾸밈의 유형을 단순미, 빈곤미, 미완의 미, 도회미, 해학미로 정의하고 있다. 단순미는 엄격한 절제와 생략으로 장식적 요소를 배제한 순수성으로, 빈곤미는 질박함을 아름답게 간주, 파괴를 통한 탈구성을 추구함으로써 오프꾸뛰르와 상반되는 안티꾸뛰르(anti-couture)적 경향으로, 미완의 미는 완전함을 거부하는 미완성의 미이자 비구축적 형태로, 도회미는 이원론을 거부하고 양면성을 지닌 도가의 선미학적 측면을 반영·명료하게 구분할 수 없는 모호성으로, 해학미는 미추의 구분을 초월·기발함과 자유로움을 통해 시각적인 즐거움을 준다.⁹⁾ 이는 현대패션 전반에 나타나고 있는 자연적, 절충적, 해체적, 빈곤적, 유희적 경향과도 유사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기존의 포스트모더니즘의 시각에서 벗어나 그 동안 평가절하되어 온 동양 미의식의 측면에서의 접근이 요구된다 할 수 있다.

따라서, 현대 패션 뷰티디자인에 나타난 반꾸밈적 경향이란 미의 상대 개념인 반미학과 추 개념의 수용에 따른 탈경계성, 초월성, 불형식성, 부정확성을 비롯해 기존의 미적 형식을 거부한 비정형성, 불완전성 등과 동양미학에 내재된 비장식적 자연미, 채우기 위해 비워두는 미완성적 빈곤미, 명징성을 거부하고 상대개념을 수용하는 양면적 절충미, 기교나 꾸밈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표현의지를 실현하는 해학미 등 정해진 틀에서 벗어나 자연과의 통일감을 추구하려는 반꾸밈 미의식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III. 파리 컬렉션의 반꾸밈적 패션경향

21세기 패션은 자연과 환경문제 및 동양철학의 관심에 따른 자연주의적 경향을 비롯해 시간·공간·문화·성(性)적 측면에 있어 상반 개념의 공존 및 다양한 이미지와 감성의 차용, 나아가 기존 개념 및 장르의 왜곡·변질·

파괴 등 복합적·극단적 표현 방식을 보인다. 이는 끊임없이 새로움을 추구하려는 인간 본연의 창작 의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결국 무차별적 혼용과 상호침투에 의한 제 3의 하이브리드(hybrid)적 양상과 반꾸밈적 추 개념의 수용에 따른 모호성(ambiguity)으로 나타난다.

그동안 최고급 소비 지향문화로 인식되어온 오피꾸뛰르 또한 이러한 변화를 적극 수용한 절충적 경향을 보이는데, 오피꾸뛰르와 프레타포르테의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패션경향과 미적 특성을 살펴보면 반꾸밈적 경향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표 3>의 선행 연구를 보면 복고성, 민속성, 양성성, 융합, 상호텍스트성 등의 절충적·해체적 경향을 비롯해 창조적 역동성, 변형, 복잡, 신비, 아방가르드 등의 실험적 경향 및 그로테스크, 공포, 냉소 등 부정적 미감을 자극하는 빈곤적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 파리컬렉션의 반꾸밈적 패션경향의 선행연구

구분	논 제	연구자	패션 경향	반꾸밈적 특성
오피꾸뛰르	오피꾸뛰르 작품에 표현된 현대패션의 경향 연구	김선영 임영자	창조적 역동성, 복고성, 대중문화 절충성, 민속성	탈경계성, 해체성
	오피꾸뛰르 컬렉션에 나타난 데카당스적 특성 연구	김양희 박선경	관능성, 양성성, 공포, 변형, 융합, 그로테스크, 냉소, 복잡, 신비	퇴폐성, 모호성 파괴성, 이질성
	Christian Dior 오피꾸뛰르의 디자인 오리지널리티	공미선 채급석	심플리시티, 아방가르드 (오피꾸뛰르의 디자인)	단순성, 실험성
프레타포르테	현대패션에 표현된 해체주의의 상호텍스트성에 관한 연구	서경희 추태귀	상호텍스트성 (성, TPO, 소재, 코디네이션)	해체성, 부조화 실험성
	파리 컬렉션에 나타난 현대 남성 패션에 관한 연구	김지연	시대의 융합, 다기능성 신개념 섹슈얼리즘	복고성, 양성성
	현대 남성 패션에 나타난 젠더 특성	김정연	여성성, 남성성, 양성성	해체성, 양성성

1. 절충적 경향(eclecticism)

과거의 시대·역사적 요소, 동양을 포함한 제 3국의 이미지를 차용·변형시킨 복고적·이국적 경향을 비롯해 고급·하위문화적 이미지 등 상대적 개념을 절충하는 탈경계적·해체적 양상으로 이분법적 구분을 거부하고, 여러 특징을 동시에 위치시킴으로써 불명료한 모호성을 이끄는 반꾸밈적 경향을 보인다. 여기서 탈경계라 함은 각 고유 개념의 경계를 초월해 이질적인 것들 간의 연결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며¹⁰⁾, 해체란 기존 개념과 구성의 파괴·재구성을 통해 서로 간의 수용과 혼합이 가능하게 한 현대패션의 주된 특징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복고적 경향은 현대의 각박한 물질문명 및 인간 소외에서 벗어나 과거에 대한 향수와 그리움을 역사적 요소의 차용을 통해 해소하려는 것으로 패션에 있어서는 과거 특정 시대의 인물이나 이미지를 차용·재구성하거나 <그림 7-8>, 서구 중심적 사고의 한계 및 서양의 미적 기준에 염증을 느끼고, 그동안 소외 시 되어온 동양 국가를 비롯한 주변 국가의 모티브를 차용해 접목시키는 이국적 경향으로 차별적·신비적 이미지를 풍긴다 <그림 9-10>.



<그림 7>
Christian Dior
HC, 2005fw
(출처: www.style.com)



<그림 8>
Chanel
PAP, 2006fw
(출처: www.style.com)



<그림 9>
Elie Saab
HC, 2005fw
(출처: www.style.com)



<그림 10>
Alexander McQueen
PAP, 2005ss
(출처: www.style.com)

2. 자연적 경향(naturalism)

자연·웰빙(well-being)·친환경에 대한 관심을 포함해 꾸미지 않은 소박한 자연스러움을 선호하는 동양 철학을 반영한 것으로 인위적인 것을 거부, 자연 그대로의 형태와 색채·소재를 통해 순수한 이미지를 추구한다. 정확한 수치에 따른 결정적 구성기법이 아닌 몸을 가볍게 감싸는 여유있는 비결정적 실루엣이나 흰색·베이지색 등 무채색과 중간색 톤(neutral)의 자연 색채, 가공하지 않은 거친 천연소재, 장식의 배제를 통해 정교한 우아미와는 상반된 무기교의 양상을 보인다. <그림 11-12>는 꾸밈에 대한 반대 경향으로 디자인 원리나 구성 요소가 최대한 절제·은폐된 자연스러운 특징을 보인다. 단, 극도의 삭제·변형으로 인해 추한 이미지를 양산하는 것은 빈곤적 경향에 포함시켜 설명하도록 하였다.



<그림 11>
Givenchy
HC, 2009ss
(출처: www.style.com)



<그림 12>
Ann Demeulemeester
PAP, 2002ss
(출처: www.style.com)

3. 실험적 경향(avant-garde)

자유로운 감정의 발산과 해방감을 위해 기존 장르나 개념을 변형·과장, 이질적 요소의 도입 및 기존의 위치에서 이탈시켜 엉뚱한 곳에 배치시키는 등 비정상적인 불균형의 미를 추구한다. 이는 기존의 상반된 개념의 엄격한 구분에서 해방되어 다양성을 수용한 포스트모더니즘의 한 특징이자 표현의 한계를 초월해 시각적인 즐거움을 주는 동양의 반꾸밈적 표현으로 보는 이로 하여금 놀라움과 정신적 쾌감을 갖게 하는 유머적 성향을 보인다 <그림 13-14>. 유희로서의 예술의 미학은 갑작스런 긴장의 소멸과 의외성으로 웃음을 자아내는 해학성을 지

니며, 현실도피의 의미가 내재되어있는데¹¹⁾, 특히 가상세계의 초현실주의를 비롯해 팝아트(Pop Art)의 패러디(parody), 키치(kitsch)등 대중예술부터 모티브를 끌어온 아방가르드(avant-garde)적 이미지는 패션을 예술로 승화시키려는 의도라기보다는 다양한 이미지 실현을 위한 무차별적 절충이라 생각된다. 또한 전혀 어울리지 않는 요소를 결합시킨 실험성은 극도로 부자연스럽거나 괴기스럽고 흥측한 이미지로 보여지는데, 이는 유머나 재미와는 다른 공포, 혐오 등의 극단적인 불쾌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로테스크(grotesque)적 성향의 반미 개념이자 제도화된 상식에서 벗어난 무제한적 표현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라 하겠다 <그림 15-16>.



<그림 13>
Christian Dior
HC, 2005fw
(출처: www.style.com)



<그림 14>
John Galiano
PAP, 2004fw
(출처: www.style.com)



<그림 15>
Jean Paul Gaultier
HC, 2004ss
(출처: www.style.com)



<그림 16>
Alexander McQueen
PAP, 2007fw
(출처: www.style.com)

4. 빈곤적 경향(povertism)

정교하게 다듬어진 우아미를 뛰어넘어 일탈로 이어지는 파괴적 경향으로 완벽한 조형미 실현을 위한 미적 요소를 버리고, 절제·생략 나아가 빈곤해보이도록 하는 동양 미학에 내재된 역설적 경향을 의미한다. 기본적인 디자인 요소의 은폐를 통한 축소적 경향이나 완성된 구성을 의도적으로 파괴, 지저분하게 만드는 미완성과 변형의 파괴적 경향 등 반꾸밈적 부조화의 미를 실현함으로써 미적 관조를 방해하거나 반미적 추의 표현을 새로운 미의 범주로 포함시켜 다양한 미적 표현을 가능케 한다. 최근 핑크를 비롯해 비주류인 거리 문화의 파괴적 성향을 적극 수용한 Punkature¹²⁾나 빈티지(vintage)스타일은 고급스러운 오프꾸떡르와 달리 상반된 이미지를 추구하는데, 이는 그동안 주목받지 못하던 반미적 성향의 추·빈곤 개념이 다양성을 수용하려는 패러다임의 변화에 힘입어 하이패션에 적극적으로 수용되는 역전현상을 야기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림 17-18>.



<그림 17>
Christian Dior
HC, 2001ss
(출처: www.style.com)



<그림 18>
Hussein Chalayan
PAP, 2002fw
(출처: www.style.com)

이와 같이 파리컬렉션에 나타난 패션의 절충적, 자연적, 실험적, 빈곤적 경향은 이성적 판단기준에 의한 표현 방식에서 벗어난 반꾸밈적 경향으로 전술한 일본 패션의 반꾸밈적 경향인 단순미, 빈곤미, 미완의 미, 도회미, 해학미와도 큰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다. 즉, 절충적 경향은 이질적 개념의 혼용으로 본래 개념을 구분할 수 없는 모호성을 지닌 도회미로, 자연적 경향은 질체와 생략을 통해 장식적 요소를 배제·순수성을 지닌 단순미로, 실험적 경향은 미추의 구분을 초월한 기발함을 통해 시각적 즐거움을 주는 해학미로, 빈곤적 경향은 질박함을 아름답게 간주·과피를 통해 탈구성을 추구하는 빈곤미와 완전함을 거부하는 미완의 미로 연관시켜볼 수 있다.

IV. 파리컬렉션에 나타난 뷰티디자인의 반꾸밈적 경향

2000년대 이후 파리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디자이너 35명(오프꾸뛰르 : 10여명, 프레타포르테 : 25명)의 작품을 대상으로 사진자료 1,000여점(오프꾸뛰르 : 275점, 프레타포르테 : 778점)을 선별해 메이크업과 헤어디자인 경향을 분석하였다. 선별된 사진자료는 대립적·상대적 개념 및 서로 다른 장르의 결합에 있어 반미(反美)적 요소를 적극 수용한 것과 장식적 표현이 철저히 배제된 것들로 대칭, 균형, 비례 등 정제미의 꾸밈적 경향이나 의도적인 기교는 제외되었다. 파리 컬렉션에 나타난 뷰티디자인의 반꾸밈적 경향을 살펴보기 위한 기존의 선행 연구를 보면 이국성·복고성·다문화성·양성성 등의 절충적 경향과 해학성·실험성·협오성 등의 전위적 경향, 과피성·해체성·비인간성 등의 과피적 경향, 그 외 자연적 경향 등 전술한 패션 경향 및 뷰티디자인의 반꾸밈적 경향과의 연관성을 예측할 수 있다 <표 4>.

<표 4> 뷰티디자인 반꾸밈적 경향의 선행연구

구분	논 제	연구자	패션 경향	반꾸밈적 특성
오프 꾸뛰르	오프꾸뛰르 컬렉션에서 본 메이크업 경향에 관한 연구	박선희 임영자	에스닉, 레트로 오브제, 그로테스크	이국성, 실험성 협오성
프레타 포르테	파리 컬렉션에 나타난 메이크업의 스타일 분석 -2001SS-2005 FW를 중심으로-	이경은	레트로, 에스닉 로맨틱, 핑크 아방가르드	복고성, 이국성 자연성, 과피성 전위성
	Paris 컬렉션의 헤어스타일에 표현된 해체주의 : 2001-2007 컬렉션 중심으로	김성아	성의 해체 민족주의의 해체 기존방식의 해체	양성성, 중성성 다문화성 실험성, 해체성
	메이크업에 나타난 고스 스타일 특성에 관한 연구 : 2002년-2006년 중심으로	한보라	모호성, 심미성 신미성, 실험성 비인간성	모호성, 실험성 비인간성
	남성의 헤어스타일과 메이크업에 나타난 性的 하이브리드 현상에 관한 연구	공차숙	여성성, 양성성	해체성, 절충성
파리컬렉션에 나타난 메이크업 스타일 분석	이경은	레트로, 에스닉 로맨틱, 핑크 아방가르드	복고성, 이국성 자연(여성)성 과피성, 실험성	

1. 절충성(eclecticism)

특정 시대의 역사·문화적 요소나 다국적 이미지를 수용한 복고·다문화적 경향 및 펑크·히피 등의 하위 문화적 요소를 믹스시킨 양상으로 각 요소의 무차별적 교류에 의해 부조화된 이질적 이미지를 양산하는 모호한 특성을 보인다. 이는 서양의 과학적·이성적 판단기준에서 벗어나 동양의 비과학적·감성적 측면의 수용을 통해 표현의 한계를 극복하고, 무한한 창작의지를 실현하려는 시도로 본래의 개념이 왜곡·변질된 반꾸밈적 양상을 보인다. 메이크업에서는 특정 시대의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 <그림 19> 또는 일본·중국 등 비서구 국가 이미지를 차용·변형시켜 낭만적·복합적 이미지로 표현되며 <그림 20>, 헤어디자인 또한 역사적 사건과 제 3국의 민족적 이미지 및 비주류 문화를 부분적으로 수용, 다른 요소와 무분별하게 혼용하여 모호한 이미지를 만든다 <그림 21-22>. 절충성은 인간의 내면에 깔려있는 자유분방한 표현의지를 실현시키기 위해 풍자(parody)나 혼성모방(pastiche)의 기법을 반영하며, 보편적·기계적·논리적 성향의 주지주의에 반해 형식과 규칙을 무시, 기괴하고 추한 것을 반영한 낭만주의¹³⁾ 또한 과도한 장식이나 이국적 요소의 수용을 통해 반꾸밈적 양상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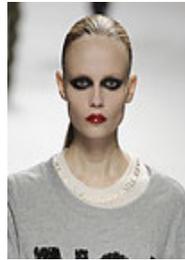
<그림 19>
Christian Dior
HC, 2004ss
(출처: www.style.com)



<그림 20>
Christian Dior
HC, 2007fw
(출처: www.style.com)



<그림 21>
Alexander McQueen
PAP, 2005fw
(출처: www.style.com)



<그림 22>
Viktor & Rolf
PAP, 2008fw
(출처: www.style.com)

2. 자연성(naturalism)

형식과 규칙을 고수해 온 서양의 합리적·과학적 사고에서 벗어나 가공되지 않는 자연의 현상을 비롯해 무형식·불균형·비정형성 등 반꾸밈적 특성을 수용하는 것으로 각박한 물질문명에서 벗어나 자연으로의 회귀를 갈망하는 시대적 분위기 및 동양의 선(禪)사상을 반영하여 인위적인 것을 거부, 꾸밈없는 형태와 색채를 통해 소박·단순한 이미지를 추구한다. 메이크업에서는 누드(스킨), 베이지, 브라운 등의 중간색(neutral)을 이용, 얼굴의 형태를 자연스럽게 살린 청순한 이미지에서 아름답게 포장하려는 의도를 상실한 채 어떠한 기교도 가미하지 않은 순수한 무기교의 미로 표현된다.

헤어디자인에서는 자연스럽게 풀어헤친 브라운 톤의 생머리나 가벼운 컬링(curling) 또는 대충 올려빚어 흘러내린 업스타일링(up-styling) 등 꾸밈지 않은 자연스러움과 절제된 로맨티시즘으로 표현된다 <그림 23-26>. 단, 기교적인 측면에서 절제와 생략을 통해 부정적 감정을 일으키는 것은 빈곤성에서 다루기로 한다.



<그림 23>
A. Valérie Hash
HC, 2005fall
(출처: www.style.com)



<그림 24>
Givenchy
HC, 2005fw
(출처: www.style.com)



<그림 25>
Martin Margiela
PAP, 2007fw
(출처: www.style.com)



<그림 26>
Chloé
PAP, 2009fw
(출처: www.style.com)

3. 전위성(avant-garde)

서양의 수리적 사고에 따른 완벽한 미적 표현에 염증을 느끼고, 구성요소나 디자인 원리의 해체를 통해 다양한 표현을 수용하려는 자유분방함의 시도로 비대칭, 불균형, 부조화의 반꾸밈적 표현을 통해 인간의 무한한 창작열을 고무시키고 시각적 즐거움을 제공한다. 특히 예기치 않은 것들과의 조합으로 의외성을 강조한 데페이즈망(depaysment)기법 및 형식이나 기존 관념에서 벗어난 자동 기술방법인 오토마티즘(automatism)등의 초현실주의 경향¹⁴⁾은 기발한 위트를 보여주는데, 메이크업에서는 이목구비 형태를 무시·과장·왜곡하거나 엉뚱한 색을 적용해 웃음을 유도하며, 피기스럽고 부자연스러운 이미지로 절망·공포 등 극단적 그로테스크(grotesque)한 감정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그림 27> <그림 29>. 특히 유머란 현대인의 중압감과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최고의 수단으로 과거에는 저급한 문화로 간주되기도 했으나, 이를 통해 마음의 평안과 정신적 만족감을 주는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유머의 기능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¹⁵⁾ 헤어디자인에서는 머리카락을 조형물로 변형시키거나 엉뚱한 조형물 설치 또는 형태의 극대화, 장식의 과장, 무제한적 색 사용을 통해 전체적인 조화를 무시한 산만한 이미지로 표현되는데, 이러한 부조화 현상을 통해 재미와 혐오라는 양면적 감정을 이끈다 <그림 28> <그림 30>.



<그림 27>
Christian Dior
HC, 2006fw
(출처: www.style.com)



<그림 28>
Givenchy
HC, 2005fw
(출처: www.style.com)



<그림 29>
C. D.Garçons
PAP, 2008ss
(출처: www.style.com)



<그림 30>
J. Watanabe
PAP, 2003fw
(출처: www.style.com)

4. 빈곤성(poverty)

더러움에 감추어진 진실을 예술로 승화시킴으로써 더욱 진실된 것으로 만들려는 과시적 빈곤의 표현이자⁶⁾

은폐·미완성·변질을 통해 일탈로 이어지는 과격의 미라 할 수 있다. 빈곤은 장식적 요소의 생략에서 나아가 기본 요소의 파괴·변형 및 미와 대립된 반꾸밈적 추(醜)의 요소를 미의 범주로 격상시켜 다양한 미적 표현을 가능케 한 불균형·불완전의 표현방식을 의미하는데, 메이크업에서는 이목구비의 생략·변형 및 색의 제한, 불필요한 색의 과다 적용 등으로 부자연스러움을 유도하거나, 완성된 메이크업을 고의적으로 파괴시킴으로써 불완전의 미를 추구한다 <그림 31> <그림 33>.

헤어디자인 또한 볼륨감이나 형태감을 최소화하여 꾸미지 않은 절제미로 표현하거나 과도하게 확대 또는 고의적으로 망가트려 지저분하게 만듦으로써 미적 관조를 방해하는 몰형식적 부조화를 초래한다 <그림 32> <그림 34>.



<그림 31>
Givenchy
HC, 2008ss
(출처: www.style.com)



<그림 32>
Valentino
HC, 2004ss
(출처: www.style.com)



<그림 33>
John Galiano
PAP, 2007fw
(출처: www.style.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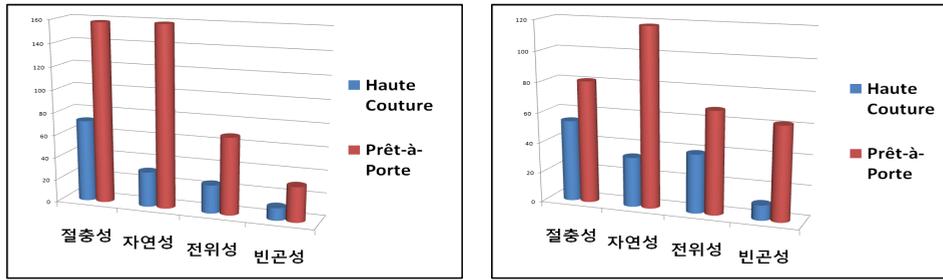
<그림 34>
Yohji Yamamoto
PAP, 2005fw
(출처: www.style.com)

이와 같이 뷰티디자인의 반꾸밈적 경향은 단순·소박한 이미지의 자연성, 절제를 통해 빈곤해 보이도록 하는 빈곤성, 경계를 초월해 서로 다른 요소가 결합된 절충성, 각 장르의 무제한적 시도에 따른 실험적 접근을 통한 전위성 등으로 나타났으며, 실증자료를 통한 빈도를 살펴보면 <표 5>와 같다. 먼저 메이크업의 반꾸밈적 경향에서 오프꾸뛰르는 절충성, 자연성, 전위성, 빈곤성 순으로 프레타포르테는 자연성, 절충성, 전위성, 빈곤성으로 차이를 보이며, 헤어디자인 또한 오프꾸뛰르의 절충성, 전위성, 자연성, 빈곤성의 순으로 프레타포르테는 자연성, 절충성, 전위성, 빈곤성으로 차이를 보였다. 이를 통틀어 뷰티디자인의 전반적 양상을 정리하면 오프꾸뛰르의 절충성(46%), 자연성(23%), 전위성(23%), 빈곤성(8%)의 순으로 절충적 경향이 강했던 반면, 프레타포르테는 자연성(37%), 절충성(32%), 전위성(18%), 빈곤성(13%) 순으로 자연적 경향이 강세를 보였다. 또한 메이크업디자인에서는 절충성과 자연성이, 헤어디자인에서는 자연성과 절충성이 높은 비율을 보이는데, 헤어디자인에 있어 자연적 경향의 빈도가 높은 점을 제외하고 메이크업과 헤어디자인의 경향이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 파리컬렉션에 따른 반꾸밈적 뷰티디자인 경향

경향 구분	메이크업디자인(make-up design) 경향					헤어디자인(hair design) 경향					합계
	절충성	자연성	전위성	빈곤성	계	절충성	자연성	전위성	빈곤성	계	
오프 꾸뛰르	72	31	25	11	139	54	33	39	10	136	275
프레타 포르테	158	159	68	31	416	81	118	68	62	329	745
합계	230	190	93	42	555	135	151	107	72	465	1,020

<표 6> 파리컬렉션에 따른 메이크업(좌) 및 헤어디자인 분포(우)



V. 반꾸밈적 뷰티디자인의 미적 특성

1. 초월미(transcendence)

21세기 뷰티디자인 경향은 패션 트렌드를 반영하듯 기존 개념과 경계의 초월 및 장르 간 교류가 무차별적으로 증가하면서 다원적·절충적 양상을 보이며, 이로 인해 부정확하고 불분명한 모호성이 대두되고 있다. 문화 및 예술 다방면에 거쳐 상대적 대립 개념을 절충한 크로스오버(cross-over)적 경향은 뷰티디자인에 있어 더욱 복잡 다양한 하이브리드적 양상으로 이어지는데, 특히 시간·계층·지역적 경계의 해체 및 재구성을 통한 뷰티디자인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는 다양한 이미지 실현을 위해 과거 역사적 모티브를 무분별하게 혼합한 혼성모방(pastiche) 및 비주류였던 반미적 추 이미지와 비대칭·불균형·비정형의 반꾸밈적 요소를 무분별하게 수용한 것으로 본래의 의도나 개념은 상실한 채 주변요인에 따라 변화하는 탈경계적 접근을 보인다. 이는 서두에서 할 포스터가 반미학으로 주장한 시공을 초월하는 보편적 진리 추구인 초미학과도 연관성을 가지며, 이분법적 미추의 구분을 뛰어넘어 틀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사고를 실현하려는 동양의 미의식인 반꾸밈의 상대 개념이 공존함으로써 중심에서 이탈되는 탈중심적 모호성을 나타내기도 한다.

2. 무기교미(artlessness)

인위성을 배제하고 자연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무기교적·무작위적 경향으로 비움으로써 채울 수 있는 가능태를 지니고, 결국은 자연의 순연한 질서에 귀의하려는 도교의 무위자연(無爲自然) 사상을 반영한 반꾸밈적 양상이라 할 수 있다. 즉, 자연회귀본능을 반영한 순수 이미지 추구는 문명의 급속한 발달과 생태 파괴에 대한 경각심 및 과거로의 향수에서 비롯된 것으로 21세기 전환기 패션 경향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뷰티디자인에 있어서는 복잡하고 화려한 장식미를 버리고, 본질만을 추구하기 위해 모든 의도적 기교를 생략·절제시킨 형태이자 자연과의 통일감을 이룸으로써 드러나지 않는 편안한 이미지를 추구한다. 즉, 디자인의 장식적 요소를 최소화함으로써 단순미를 추구하는 서양의 미니멀리즘(minimalism)적 경향과 같이 동양의 반꾸밈적 무기교 또한 최대한 불필요한 것을 걸러낸 후 남겨진 소박한 자연스러움을 통해 자연을 물질이 아닌 인격적인 대상으로 간주하려는 동양 사상이 반영된 것이라 하겠다.

3. 비정상미(abnormality)

그동안 절대미의 평가기준으로 간주되던 전통적 디자인 원리나 디자인 요소의 접근법에서 탈피하여 인체 조형성의 무시·변형·왜곡 및 이질적 아이탬의 무분별한 혼용을 통해 웃음 또는 공포의 양면 감정을 유발한다. 이는 일상에서 탈피한 자유로움의 한 표현이자 현실 도피의 의미로서 천박하고 저속한 반꾸밈의 개념을 도입하여 냉소적인 웃음을 유발하거나 파괴·해체를 통한 과장과 극단적 표현으로 정상적인 상태에서 탈피, 부자연스럽고 혐오스러운 불건전한 감정을 유도한다. 해학성과 퇴폐성은 기발함과 자유로운 표현의지를 반영함으로써 기존 질서를 해체·표현 영역을 무한대로 확장시킬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심리적 해방감을 맛보게 함으로써 인간 본연의 감성세계를 찾도록 하는 역설적인 미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4. 일탈미(deviation)

자연의 무작위적 반꾸밈의 성향에서 나아가 기본 요소의 파괴를 통해 이를 더욱 빈곤하게 만드는 등 청빈(淸貧)과 질박함을 아름다움으로 승화시킨 미의식이라 할 수 있다. 엄격한 수직 비례를 따르는 서양의 정형적 기준에서 벗어나 비구조적·불완전적·불규칙적·불균형적·부조화적 디자인 원리 등 완전함을 거부하고 미완성의 미를 추구하는 동양의 반꾸밈 미학을 수용한 것으로 변형·왜곡·무질서의 개념을 표방한 일탈적 표현으로 나타난다. 이는 그 동안 소외 시 되어 온 반미적 추의 개념을 미의 범주로 끌어올림으로써 미의 다양한 표현을 가능하게 한 과시적 빈곤의 한 양상이라 할 수 있는데, 서양의 틀에 갇힌 미적 표현에 대한 반서양주의적 사고에서 나아가 그 동안 비주류로서 인정받지 못했던 파괴적 성향의 하위문화 및 동양 반꾸밈 미의식의 수용을 통해 전체성을 추구하려는 동양의 열린 사고를 의미한다 할 수 있으며, 결국은 인간의 무한한 창조 의지를 실현하려는 의도로 여겨진다.

〈표 7〉 반꾸밈적 뷰티디자인의 미적 특성

미적 특성	개 념	표현 방식
초월미	역사적·시대적·지역적·계층적 요소의 무분별한 차용에 따른 절충적 경향	복고성, 다문화성, 해체성, 탈경계성
무기교미	기교나 과장 등 인위성을 생략한 무작위적 경향	무작위성, 비장식성, 축소성, 단순성
비정상미	다양한 장르 및 개념의 혼용에 따른 무제한적 표현 경향	복잡성, 과장성, 해학성, 퇴폐성
일탈미	장식의 배제 및 파괴적 표현의 탈기교적 경향	저급성, 파괴성, 공격성, 탈구조성

VI. 결론

세계 4대 컬렉션 중 파리 컬렉션은 뉴욕에 이어 가장 많은 디자이너들이 활동하는 패션의 발표장이자, 희귀하고 독창적인 디자인으로 다른 지역의 컬렉션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나아가 전 세계를 대표하는 실험적 성향의 디자이너들이 활약하는 파리 컬렉션의 오프뚜르르 비록 과거에 비해 전위적 시도나 미래 패션을 선도하는 역할은 감소했으나, 여전히 오랜 전통과 수공예적 예술성으로 디자이너들의 창작열을 고무시키고 있으

며, 디자이너 개개인의 독창성을 반영함으로써 전 세계 프레타포르테를 비롯해 세계패션 흐름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패션에 있어 주도적 위치에 있는 파리 컬렉션을 중심으로 최근 대두되고 있는 반꾸밈(anti-decoration)적 경향의 디자인을 살펴봄으로써 미래의 복잡 다양한 패션 및 뷰티디자인 경향을 예측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함에 있으며,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반꾸밈의 미란 꾸밈 및 아름다움과 반대되는 반미학 또는 추(醜)의 개념이자 미나 이성에 대응하는 감성의 초(超)미학으로서 정형화된 미적 개념을 거부한 비균제·불균형·부조화 등의 비정형적 특성을 말한다. 또한 이질적 개념의 혼용으로 본래의 개념 구분이 불가능한 모호성이나 절제와 생략을 통해 장식적 요소를 배제한 순수 자연의 단순성, 미추의 구분을 초월·기발함과 자유로움으로 시각적 즐거움을 주는 해학성, 파괴 또는 미완성을 통해 탈구성을 추구·질박함을 아름다움으로 간주하는 빈곤성 등이 이에 포함된다 하겠다.

둘째, 21세기 파리컬렉션에 나타난 패션의 반꾸밈적 경향은 역사적·시대적·지역적·성적·계층적 측면에서의 절충적 경향과 인위성을 거부한 순수한 이미지 추구의 자연적 경향, 다양한 개념의 해체와 장르의 교류를 통한 실험적 경향, 절제·빈곤·생략·미완성 등 몰형식적 탈기교의 빈곤적 경향으로 나타났다.

셋째, 21세기 파리컬렉션에 나타난 뷰티디자인의 반꾸밈적 경향에서 오프꾸뛰르는 절충성(46%), 자연성(23%), 전위성(23%), 빈곤성(8%)의 순으로 다원적 경향이 강했던 반면, 프레타포르테는 자연성(37%), 절충성(32%), 전위성(18%), 빈곤성(13%) 순으로 자연적 반꾸밈의 경향이 강세를 보였으며, 전체를 통틀어 메이크업디자인에서는 절충성과 자연성 순으로, 헤어디자인에서는 자연성과 절충성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여 상반된 양상을 보였다.

넷째, 반꾸밈적 뷰티디자인에 나타난 미적 특성은 초월미, 무기교미, 비정상미, 일탈미로 나타났다. 초월미는 시대·민족·성(性)·계층적 측면의 크로스오버(cross-over)를 의미하는 복고성(retrospective), 이국성(ethnic), 양성성(genderless)·해체성 및 기존의 장르 및 경계를 초월해 무한한 절충을 시도한 실험성을, 무기교미는 인위성을 배제하고 자연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한 순수성을, 비정상미는 왜곡·변형을 통한 과장과 극단적 표현으로 웃음과 공포의 양면감정을 유발하는 전위성을, 일탈미는 정형화된 미적 표현이 아닌 하위문화의 파괴성과 동양의 반꾸밈적 미의식을 수용한 빈곤성을 특징으로 한다.

이처럼 반꾸밈적 추의 미를 적극 수용한 뷰티디자인은 미에 반대되는 개념 추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구 중심의 이분법적 표현방식에서 벗어나 미추(美醜)의 구분을 초월·다양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동양의 열린 개념의 접근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1) Gilles Lipovetsky, 이득재 역 (1999). 패션의 제국, 서울: 문예출판사, pp.151-154.
- 2) 채금석 (2002). 패션디자인 실무, 서울: 교문사, p.7.
- 3) 최범석 (2005). 최범석의 아이디어, 서울: 푸른숲, pp.232-233.
- 4) 김경란 (2004). 다문화시대 하이브리드 패션,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44.
- 5) Hal Poster, 윤병외 역 (1994). 반미학 -포스트모던 문화론-, 서울: 현대미술사, pp.15-27.
- 6) 변영희, 채금석 (2004). 패션쇼 메이크업의 반미학적 특성 연구, 패션뷰티학회지, 2(1), p.66.
- 7) 변영희, 채금석 (2004). 현대메이크업에 표현된 추 이미지에 관한 연구, 복식, 54(5), p.28.

- 8) 채금석 (2004). 현대 일본패션에 내재한 반꾸밈 미학, 복식, 54(8), p.132..
- 9) 위의 논문, p.144.
- 10) 간호섭 (2008). 현대 패션에 나타난 콜레보레이션의 문화적 특성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P.143.
- 11) 엄숙희, 김문숙 (2000). 현대 복식에 표현된 아방가르드의 유형별 특성 연구, 복식문화연구, 8(2), p.31.
- 12) 엄혜정 (1998). 비비안 웨스트우드(Vivienne Westwood)의 작품세계와 미적특성, 복식, 37(-), p.45.
- 13) 이경아, 전해정 (2004). 로맨틱시즘 복식의 양식(1), 복식, 54(1), p.143.
- 14) 손영미, 이해정 (2005). 헤어 메이크업 디자인 연구, 한국의류산업학회지, 7(6), p.660.
- 15) 이윤진, 박명희 (2003). 현대 의상에 나타난 유머성, 복식, 53(5), p.34.
- 16) 정진영 (2002). 벨기에 패션 디자인의 반미학적 특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8.